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

2021. **11.5**(금) 등록 13:30 행사 14:00

메종글래드 제주 제이드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예술인의 직업전환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2007년 1월에 설립된 재단(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5,800여명의 무용예술인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무용예술인의 은퇴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비 지원, 직업전환 아카데미, 직업전환 컨설팅
공연준비 및 공연 중 발생한 상해치료비지원과
부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상예방검진과 찾아가는 상해예방,
공개오디션을 통해 무용단과 무용수를 연결해주는 댄서스잡마켓 합동오디션,
안무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댄서스커넥션 1&7 등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

사회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www.dcdcenter.or.kr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사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14:10 - 14:35	Session 1 제주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비전과 전망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14:35 - 15:00	Session 2 차별화를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 축제 운용사례	장광열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대표
15:00 - 15:15	휴식	
15:15 - 16:30	<p>라운드테이블 - 섹션별 토론</p> <p>Session 1 마을문화 조성과 '문화예술의 섬' 제주 운용</p> <p>Session 2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 운용</p> <p>Session 3 문화공간 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p> <p>Session 4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p>	<p>모더레이터</p> <p>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p> <p>장광열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대표</p> <p>김태관 문화예술학 박사</p> <p>김길리 제주시티발레단 단장</p>
16:30 - 17:30	종합토론 및 발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입니다.

코로나 19가 1년여 동안 지속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21 제주 국제 댄스포럼> 도 조심스럽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명의 발제자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예술로서 제주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사회를 맡아주신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장광열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대표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모더레이터로 함께 해주신 김태관 문화예술학 박사님, 김길리 제주시티발레단 단장님 그리고 패널리스트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 19를 고려하여 현장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국제댄스포럼 운영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박인자



올해도 제주댄스빌리지(Jeju Dance Village)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댄스포럼은 이제 4회째를 맞았습니다.

2018년 6월 바로 이 장소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유희시설 등과 무용예술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제주국제댄스포럼을 개최했고, 2019년 5월엔 '제주댄스빌리지 조성을 통한 국제도시 제주의 이미지 고양'을 주제로 모였습니다. 2020년 7월엔 '예술프로그램 운용과 지역문화 고양'을 주제로, 그리고 올해는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을 화두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국제댄스포럼은 해를 더해 갈수록 지향점인 제주의 무용을 비롯한 문화와 예술로 보다 구체화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공연·교육·행정·언론 등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제주의 문화 예술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고견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항해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파도를 넘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잔잔한 바다를 건너왔을 때보다 감동의 크기가 너무나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댄스빌리지를 향한 여정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그 속도가 더디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만 없었다면 지난해 댄스포럼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수십명이 아니라 발표장을 청중으로 가득 채우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올해 포럼도 라운드테이블이 아니라 국제심포지엄 이상으로 성대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2018년 제주댄스빌리지에 대한 첫 구상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제주국제댄스포럼을 개최하고, 1년여 만인 이듬해 5월 1차 성과물인 '상가리 문화공간 마루'를 개관하는 등 제주댄스빌리지를 위한 우리의 행진은 열정적이었고 역동적이었으며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면 거센 앞바람에 밀려 속도가 나지 않거나 심할 경우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뱃사람들은 황파를 헤치고 항구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는 물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천혜의 섬' 제주도를 무용과 예술의 문화 콘텐츠가 더해진 더욱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포럼이 제주댄스빌리지를 향한 항해에 지혜와 용기를 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댄스빌리지추진위원장

김철웅

2021 라운드테이블

2021 ROUND TABLE

발제 I

제주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비전과 전망

발제자



이승택 Lee, Seung-taek

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갤러리 하루 대표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
공주시 예비문화도시 자문위원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문화예술과 도시건축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컨설턴트
건국대학교(건축공학과 전공) 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계획설계 전공)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계획설계 전공) 박사 수료

발제 I

제주 '문화예술의 섬' 프로젝트, 비전과 전망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I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주요내용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시행근거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2019.12.10.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섬 (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본방향

- 문화자치시대, 제주문화예술계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 해소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 제공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치 확산

II 환경분석

■ 정책 분석(내부)

-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제주연구원, 2019)
- 사람이 있는 제주 문화 →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로 즐거운 삶 구현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핵심과제>

전략	핵심과제	추진 기간
1. 고유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제주 문화 정체성 확립	1-1. 바다에서 한라산까지, 제주 자원 활용 기반 구축	2020~2025
	1-2. 인문학 진흥 지원제도 강화	2020~2025
	1-3. 제주 문화다양성의 포용과 확산	2020~2025
	1-4. 미래유산 제도 정비 및 활용	2020~2022
2. 문화자원 융합 제주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1. 문화콘텐츠 융합 데이터 뱅크 구축	2020~2023
	2-2.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2020~2023
	2-3.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 육성	2020~2023
3. 제주형 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3-1. 예술창작 환경 제도 개선 → 국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 확대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확대	2020~2022
	3-2. 특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생태계의 실태조사 정례화 제도 보완	2020~2022
	3-3. 문화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장르별 예술가 간의 포럼 운영 지원 → 제주 문화예술의 섬 총괄 전담 조직 신설	2020~2022
4. 문화가 있는 삶, 제주형 모델 개발	4-1. 생활SOC 확대 및 유희공간의 문화거점화 → 유희공간 실태조사 및 문화공간 이용방안 마련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지원 확대	2020~2023
	4-2. 문화공간 벨트 구축 → 제주 아트맵 제작 및 보급(각종 문화공간)	2020~2022
	4-3.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태계 구축 → 읍·면·동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와 참여기회 확장 → 지역 문화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2020~2022

「제주 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세부 실행과제 연계 도출

발제 I

■ 정책 분석(외부)

- 「코로나 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1 예술을 통한 시대적 성찰과 코로나 블루의 치유

- 수공예 예술활동의 가치 재조명: 집안에서 즐기는 취미활동으로 수공예 수요가 확대
- '치유와 명상'을 위한 예술콘텐츠의 활용

2 소규모화와 지역화

- 소규모 단위 축제(춘천마임백선) 및 공간의 무대화 확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일상공간 확대)

3 팬데믹 시대, 새로운 무대와 제작방식에 대한 탐색

- 새로운 공연예술 형태 모색 → 드라이브 인 씨어터, 아파트 발코니 콘서트 등

4 첨단기술 및 온오프 믹스 활용과 상호작용성의 강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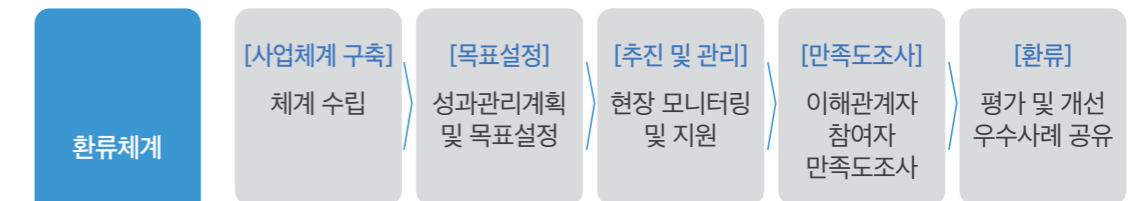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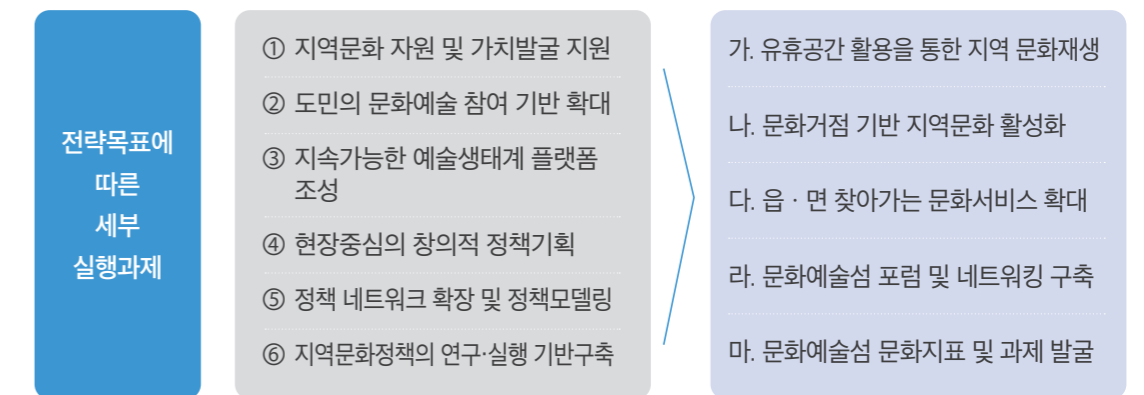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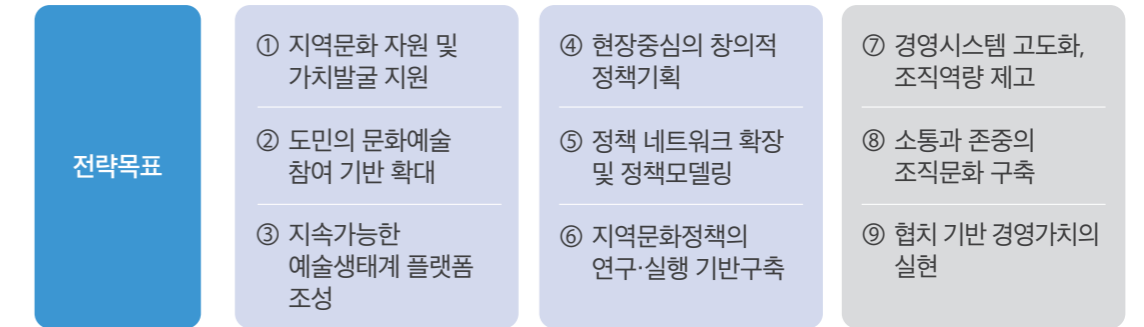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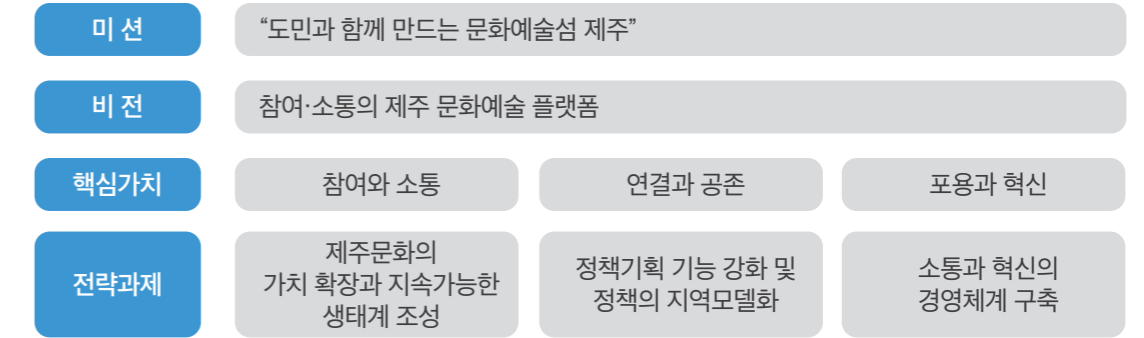
- VR로 촬영한 연극, 소설을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제작, 유튜브를 활용 비대면 연극놀이 등

■ 2020년 코로나 19 정책대응

구분	정책대응
타 지자체	-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정책대응 진행 - 긴급재난지원, 임대료·대관료 감면 또는 지원, 미술작품 구매지원 등
제주문화예술재단 전사적 정책대응	① 기초공연예술창작 활성화 <JFAC 아트러닝> : 35개 단체 지원 ②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JFAC 아트 체인지업> : 26개 사업 지원 ③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 : 총 516명 지원 ④ 문화예술창작사업 대관료 지원 : 37개 사업 지원 ⑤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85개 사업 지원 ⑥ 제주예술공간 방역물품 지원: 총 110개소(전시, 공연, 책방) ⑦ 문화예술교육 창의주제 지원 : 100개 사업 지원 ⑧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 4개팀 선정(제주시 2개, 서귀포시 2개) ⑨ 코로나 위기 극복 지역문화 가치 발굴 연구 지원 : 23건 지원 ⑩ 예술인복지사업 : 예술인컨설팅 5건 등

III 추진체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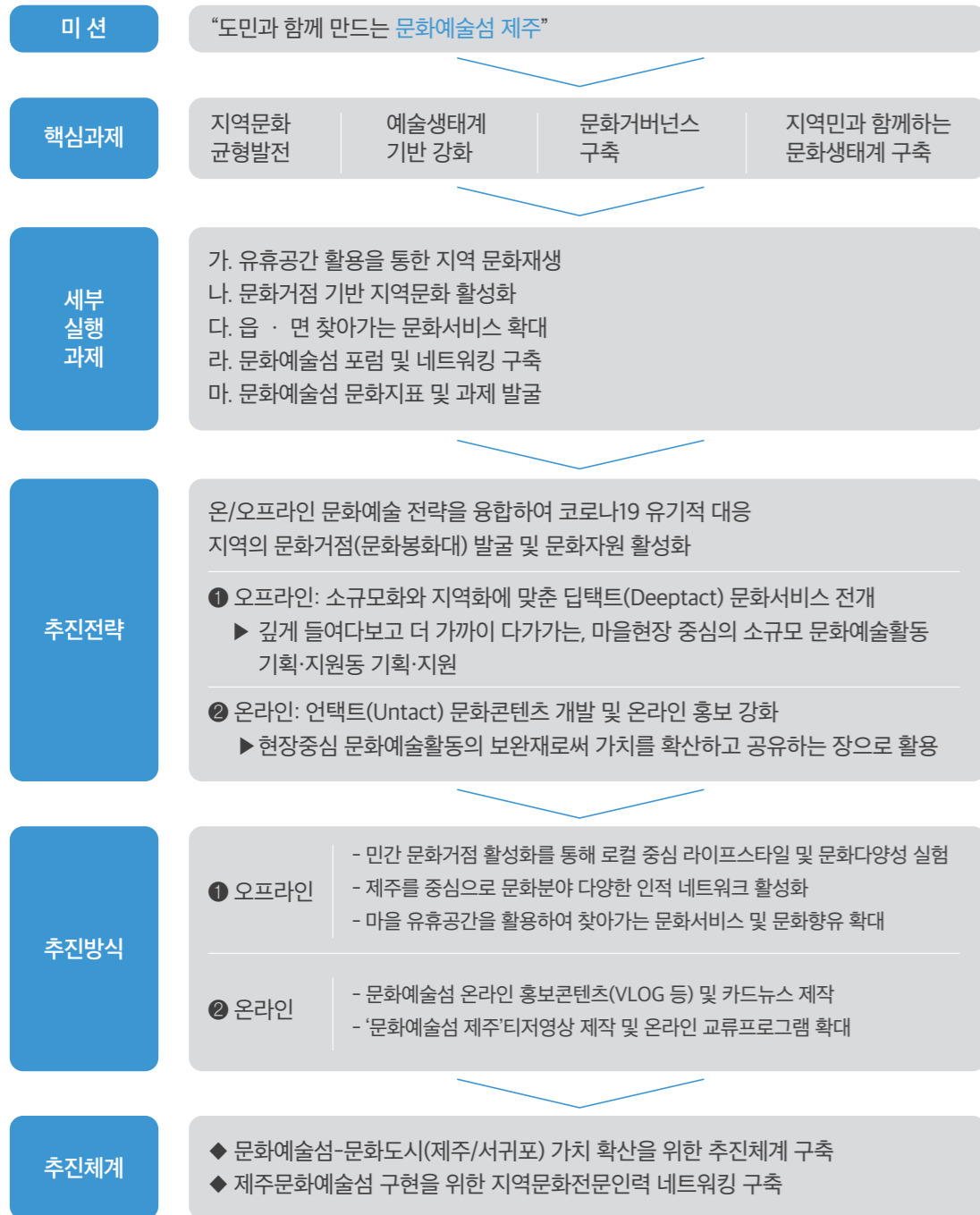
■ 비전·전략 연계 체계



'문화예술섬 제주'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과 재수립 및 환류 체계구축

발제 I

■ '2021 제주문화예술섬' 추진체계도



IV 사업계획

1.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재생

- 지역의 유휴공간을 전시 또는 문화활동 등 공공문화공간으로 문화재생
- 동부권, 서귀포권 등 권역별 문화공간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

(새로운 공간 발굴) “구도심의 유휴공간보다는 새로운 공간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도민 심층 설문조사-재단에 대한 기대 및 의견(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전략 연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유휴공간
- 기초조사 대상 공간 :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마을공동창고 등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재생

■ 추진배경

- 지역의 균형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적 재생을 통한 거점공간 마련 요구
- * 도민 심층 설문조사-제주도 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전략 연구)

기준	평점(7점 만점)
지역맞춤형 개발 및 사업	5.85
권역별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및 프로그램	6.03
문화적 재생사업을 통한 문화 거점공간 마련	6.10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	5.95

■ 추진방향

- 4개 권역에서 문화인프라 취약지역(동부권역, 서귀포권역) 우선 추진
- 제주문화도시협의회(제주시-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와 연계협력 추진
- 지역문화활성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12.21.)

■ 추진방식

- 전문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심을 통해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지역주민(마을회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진행
- 지역문화기획자 매칭 공간구성 및 문화예술 콘텐츠 공동기획

■ 운영방식

- 유휴공간을 마을(예술가, 기획자, 지역주민 등)의 공공문화공간으로 운영
- 해당 지역의 문화기획자 및 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방안 도출
- 지역주체 중심의 마을공공문화공간 운영을 지향하며, 지역주체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통해 주도성 및 자생성 확보
- 제주문화도시협의회(제주시-재단-서귀포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자원 연결

발제 I

2. 문화거점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

- ☑ 제주문화예술섬 조성을 위해 민간 문화공간 협업프로젝트 추진
- ☑ 도내 다양한 민간 문화공간 기획프로젝트 지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문화의 미래를 함께 실험하는 <그치:가치 프로젝트>
- 지원대상 : 2개 이상 민간문화공간 컨소시엄
- 사업내용 : 민간 문화공간을 기반 지역문화 활성화프로젝트 기획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도내 다양한 성격의 민간 문화공간들의 공동기획과 협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 창출 및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
- 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에서 상생하고 있는 민간 문화공간들의 역할 확장 및 기존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의 확대
- 지역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다양성 도모

■ 추진배경 및 현황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2020.01.13.)에 따라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완료

■ 프로젝트 추진체계

사업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프로젝트 기획 진행

민간 문화공간

<그치:가치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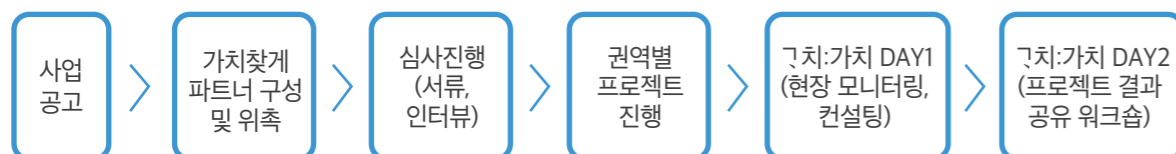
그치:가치 파트너

민간 문화공간 네트워크

가치찾게 파트너

전문가 컨설팅

■ 추진과정



3. 읍·면 문화소외지역 문화서비스 확대

- ☑ 도내 문화적 불균형 심화에 따른 지역별 문화예술 수혜 격차 양극화 해소
- ☑ 읍·면·동 지역주민 대상 일상에서 즐기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

(찾아가는 공연 지원) “작은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진행되는 지역 밀착형 공연이 필요합니다.”

* 도민 심층 설문조사-새롭게 추가되길 바라는 재단사업 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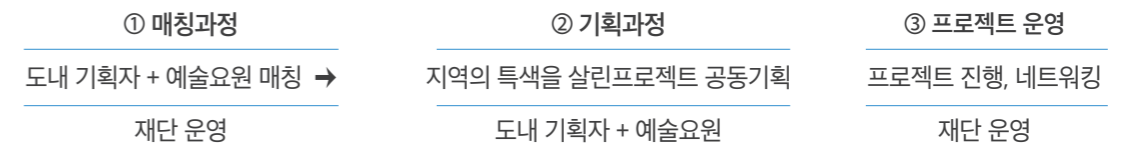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0월
- 사업대상 : 읍·면 지역 제주 도민 외
- 사업내용 : 읍·면 중심으로 다양한 유희공간 및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도내·외 예술요원 연계 지역밀착형 공연 프로젝트 운영

■ 운영방향

- 도내 기획자와 예술요원의 협업프로젝트를 통해 공동 성장 지원
- 권역별(제주권, 서귀포권, 동부권, 서부권) 균형 있는 운영으로 문화 사각지대 해소
- 월 1회 도내 기획자와 예술요원이 공동기획하는 읍·면·동 지역 대상 공연프로젝트 운영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운영과정



- 예술요원 : 예술특기자를 군복무 대신 특기를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복무제도
- 공간연계 : 읍·면 유희공간, 야외공간, 도내 생활문화센터, 민간 문화공간 등
- 홍보방안 : 재단 통합홍보 및 주민센터, 마을회 등 현장 홍보 진행
- 운영체계 :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요원 인력 연계

■ 기대효과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 읍·면 대상 지역밀착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발제 I

4. 문화예술섬 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 ☑ 제주의 문화매개자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기획자 교류 확대
- ☑ 지역문화 활성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제주 문화도시 가치 확산

(다양한 예술인 교류) “한 장소에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교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 도민 심층 설문조사-새롭게 추가되길 바라는 재단사업(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전략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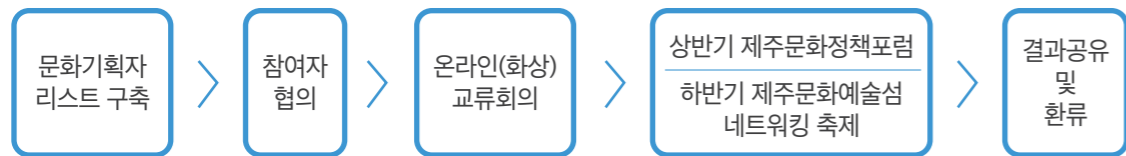
문화예술섬 포럼 및 네트워킹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외 문화기획자 및 문화매개자
- 지역 현장 활동가,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정책 전문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 사업내용 : 상·하반기 문화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추진방향

- 운영방식



■ 추진내용

구분	대상	추진내용	비고
상반기 (5월)	도내외 예술인, 문화예술전문가 등	제주문화예술섬 정책포럼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연계
하반기 (11월)	국내 문화예술인	제주문화예술 네트워킹 축제 (강연,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공연 등)	문화예술인 플랫폼 축제

거버넌스 구축 : 제주문화예술섬 실행 네트워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 협업기관 :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문화도시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 협업방식 : 제주문화도시협의회 실무회의 운영으로 협업모델 발굴

■ 사업내용

- 지역 소유의 공공·민간 소유 공간에 대한 공동 리서치를 통한 권역별 신규 유휴공간 발굴 및 재생프로젝트 진행
- 도내 민간 문화공간의 공공성 부여 및 문화예술가치 발굴 프로젝트
- 도내 인적자원(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에 대한 리스트업 및 아카이브

5. 문화예술섬 문화지표 및 과제 발굴

- ☑ 제주도 문화예술생태계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실질적 지원정책 개발
- ☑ 지역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모델링 필요

(문화정책 수립) “제주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역 특수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문화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민 심층 설문조사-재단에 대한 기대 및 의견(2019 제주문화예술재단 중기 추진전략 연구)

문화예술섬 문화지표 및 과제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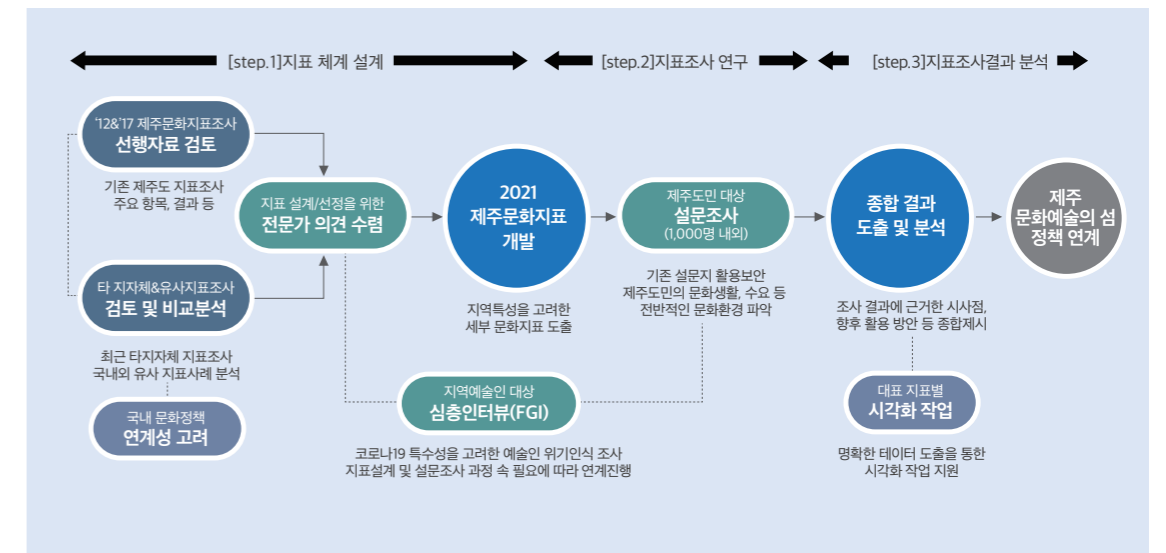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연구명 : 제주문화지표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21.9 ~ 2021.12
- 주요내용 : 2021년 제주도의 문화지표 조사 및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연구

■ 추진목적

-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 환경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자료 구축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도출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 과제 발굴

■ 지표체계 설계 및 연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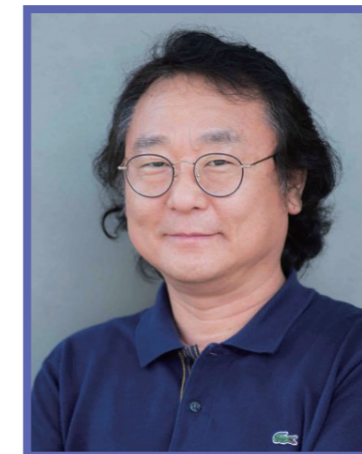
2021 라운드테이블

2021 ROUND TABLE

발제 II

차별화를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 축제 운용 사례

발제자



장광열 Jang, Gwang-yeol

현)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춤 비평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대표
서울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대표

전) 월간 <객석>/<춤웹진>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평가위원/무용중장기 발전계획 TF 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위원
(재)서울예술단 이사
호암상 심사위원

주요저서

<변동과전환>, <당신의 발에 입맞추고 싶습니다>
<20세기 예술의 세계>

차별화를 통한 국내외 문화예술 축제 운용 사례

장 광 열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 대표

1. 공연예술 축제를 통한 국가 지역 이미지 고양정책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 예술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이 같은 변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만한 아티스트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정책 부재와 함께 생활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지원제도도 미약하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을 활용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정책의 부재가 가장 안타깝다.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공연예술이나 시각예술, 축제나 마켓, 이벤트 등을 경쟁력 있는 예술상품으로 만들고 이를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고양과 연결시킨다.

최고 수준의 연주자, 무용가, 화가들을 활용해 10년 동안 일 년의 절반을 해외 투어를 통해 인도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교육과 연계시킨 인도의 10년 프로젝트나 외국의 아티스트들에게 자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호 조건을 제공, 미래를 위한 국제 예술교류에 투자하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핀란드 정부는 7월과 8월에만 16개의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술축제를 핀란드의 크고 작은 지역에서 개최한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축제의 내용이 차별화 되어 있다. 독일의 바이로이트 축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는 작은 지역에서 열린 축제가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된 사례이다. 이밖에도 내용과 성격, 운용 방식, 개최 장소 등 차별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축제를 정착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컬럼비아 대학원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통한 창의력 개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의식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예술장르가 무용이라고 판단한 미 행정부가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모델을 창안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은 해외 유명 무용단들과 발레 스타들의 일본 공연을 적극 유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순수예술의 대중화 바람을 선도하는 정책과 함께 일본 아티스트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전진기지로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예술을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운용방법 또한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정부나 공공재단, 민간 기구, 그리고 예술가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이 같은 프로젝트와 축제들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 뿐 아니라 교육 부문, 문화예술을 활용한 주민 복지와의 연계, 문화예술을 이용한 국가 또는 도시 이미지 고양이란 장기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무척 넓고 다양하다.

중앙정부에 의한 이 같은 예술 지원은 좁게는 지역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 넓게는 대한민국 예술가들의 성장과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은 한국의 예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2. 차별화 돋보이는 국내외 예술 축제

축제의 성격이나, 장르, 장소, 운영방법 등에서 차별화 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축제는 바로 그 '다름'으로 인해 국가나 지역 이미지 고양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오페라축제 (Bregenz Festival)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츠에서 매년 7~8월 약 한 달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다. 호수 위에 설치된 거대한 무대에서 열리는 오페라 공연으로 유명하며, 호숫가의 축제극장을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서 오페라,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실내 공연이 열린다.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가 펼쳐지는 호수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접해 있는 콘스탄츠 호다.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을 위한 무대

발제 Ⅱ

1945년 호수에 띄운 배 위에서 공연을 한 것이 페스티벌의 시작이다. 호수에 무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8년이며, 지금과 같은 현대식 모습을 갖춘 것은 1979년이다. 1980년에는 호숫가에 축제극장을 만들었다. 축제극장은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에 공연과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2006년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무대는 호수 바닥을 지지하여 수면 위로 드러나게 설치한 고정식으로 1년간에 걸쳐 시공하며 40여 개의 업체가 투입된다. 한번 설치한 무대는 다음 해 공연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2년째 공연이 끝나면 새로운 공연에 맞게 무대를 제작한다. 2년마다 공연을 바꾸기 때문이다.

■ 보스턴 탱글우드음악제 (Tanglewood Music Festival)



미국 북동부 보스턴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산악지역 버크셔(Berkshire)의 작은 도시 레녹스(Lenox)의 탱글우드 숲 속에서 해마다 열리는 풀밭 위의 음악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최하며 클래식, 팝,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시골 마을은 6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세계의 음악도는 물론 음악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탱글우드는 이제 지명 이라기보다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BSO)의 하계 음악 캠프라는 고 유명사로 더 유명하다. 1936년 8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처음 이곳에서 연주한 이래 클라우디오 아바도, 로린 마젤, 윈튼 마살리스, 주빈 메타 등 유명 음악인들이 탱글우드 음악제의 각 분야별 연수 과정인 탱글우드 뮤직 센터(TMC)를 거쳐 갔다. 일반인들에게 탱글우드 음악제가 인기 있는 까닭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과 유명 음악가를 한자리에서 즐기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탱글우드 음악제 기간엔 하루도 빠짐없이 크고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젊은 연주자들의 연주는 낮에 무료로 열리지만, 세계적인 유명 연주자의 공연은 리허설을 볼 수 있는 오전의 오픈 리허설을 포함해 저녁시간엔 유료로 개최된다. 반 개방형인 공연장 밖 잔디 위에서 감상하는 잔디석(lawn ticket)은 10만 원 정도로 4인 가족이 피크닉을 겸해 세계적인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 오에롤 (Oerol) 페스티벌 (Oerol Festival)

북해의 테르스헬링 섬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배를 타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오에롤 페스티벌은 매해 6월 개최되는 특정 장소에서의 공연(site specific performance)에 집중하는 축제이다.

1982년 이 축제는 연극에 관련된 소규모 행사로 시작되었다. 모든 참가자들과 상당수의 관람객들은 캠핑 시설이나 호텔이 개발되지 않았기에, 섬 내 마을의 집에서 숙박을 해결했다. 섬 주민의 수가 5천 명인데, 관객 수는 매년 증가 지금은 13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고 있으며, 어업과 농업에 이어 문화예술이 섬 경제의 세 번째 기둥이 되었다.

축제의 콘셉트는 섬 전체가 무대라는 것이다. 섬 주변의 경관이 공연을 위한 자연적인 무대(site)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은 그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발표한다. 콘서트 때에는 연단이 있는 무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무용 프로그램의 경우도 야외 공연 및 설치를 활용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의 프로젝트들은 예술, 과학, 자연의 조합을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많은 청중이 실험실 프로젝트에 현장 노동자로 참여하면서 축제는 재미있지만 진지한 생활 실험실이 된다. 오에롤에서는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설명함으로써 사회, 자연,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탐구할 수 있다. 인류와 자연이 서로 만나는 쇼와 실험실 프로젝트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를 위해 만들어진다.

신흥 예술가, 저명 과학자, 자연 보호론자, 많은 일반 관객들과 수백 명의 국제 프로그래머들이 참가하며, 모래언덕, 해변, 숲, 독, 헛간, Terschelling의 거리 등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과 작품들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풍경 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관람객들이 한 공연에서 다음 공연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오에롤 축제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대화 및 느린 터득에 기초한다.



■ 스페인 국제 무용제 MASDANZA

'마스단사(MASDANZA)'는 스페인에서 2천500km나 떨어져 있는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의 '그랑 카나리아' 섬에서 1996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댄스 페스티벌이다. 젊은 무용가들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시작한 이 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의 작은 축제에서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마스단사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뉜 컨템포러리 안무 경연대회와 함께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에서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섬 투어 공연 등 관객들과의 소통 영역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여타 축제와 차별화 된다. 관객들은 경연대회를 지켜보고 직접 투표를 해 우수한 무용수를 선발하는 데 참여하고 페스티벌에서 직접 춤을 추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현대무용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브레이크댄스 경연대회도 열린다. 또 축제 장소 인근의 중·고등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현대무용 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경연대회에 입상한 안무가는 이듬해 이 지역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무용가들과 소통하고 이 대회 수상자들은 마스단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무용계에서 널리 알려지게 된다.

■ 프랑스 몽펠리에 국제 무용 페스티벌 (Festival International Montpellier Danse)

인구 20만 명의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1981년 7월 시작된 이 축제는 세계 컨템포러리 댄스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축제이다. 1996년 이후부터 여름 페스티벌(6~7월) 외에도 겨울 시즌의 프로그램(9~12월)을 통해 50만 여명의 유료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페스티벌 관람객이다.

축제 기간은 매년 다르고 축제 외에도 시즌 공연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총 13곳으로 도시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세계 톱 클래스 안무가들의 신작이 축제를 통해 공연되는 것, 양질의 공연 작품 선별은 이 축제의 차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일본의 토가 페스티벌 (Toga Summer Arts Program)과 아키타 국제 무용축제

일본 연극계의 거장 스즈키 타다시에 의해 만들어진 토가 페스티벌은 그의 연극 이념 실현과 진정한 의미를 가진 국제 연극 창작 장소의 창조를 목적으로 1982년부터 매년 8월에 진행된다.

국적과 예술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다양한 예술가들의 합작을 장려하고 우수한 공연예술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레지던스, 워크숍, 강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류하는 동안 아티스트들은 노동과 공연을 병행한다.

아키타 국제 무용축제는 일본의 현대무용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시이 바쿠(Baku Ishii)와 히지카타 타츠미(Tatsumi Hijikata)의 고향인 아키타에서 개최하는 국제 무용축제로 정식 타이틀은 'Odoru. Akita'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6 Baku Ishii & Tatsumi Hijikata memorial' 이다.

이 축제는 '테마 페스티벌', '국내외 댄스 컴퍼니 초청', '오니카타 기념상 국제대회', '수상자를 기념하는 새로운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 전쟁 전에 이시이 바쿠는 독일에서 당시 유행하던 현대무용을 배워 일본에 소개했고,

히지카타 타츠미는 일본의 현대춤인 부토의 창시자이다. 이 두 아티스트의 이름을 내걸고 출범한 이 축제는 유명 무용가가 태어난 고향을 매개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 오스트리아 임펄스탄츠 (Impulstanz)-Vienna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오스트리아 빈에서 1984년에 시작된 임펄스탄츠는 매년 여름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전문 무용가, 안무가, 교사 및 무용 애호가들이 모여 무용을 가르치고 배우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함께 조사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빈을 무용 테크닉 및 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의 중심지로 만든다.

기존 안무가의 컨템포러리 댄스 창작 작품 외에도 Young Choreographers' Series를 통해 신인 아티스트의 작품과 만나게 된다. ImPulsTanz Extras는 전시회, 설치, 책 발표, 강연, 영화 및 뮤직 비디오 프로그램의 형태로 댄스 세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워크숍 프로그램은 90 개국 이상에서 온 수천 명의 참가자들, 모든 연령대의 초보자와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안무가들의 클래스를 들을 수 있다. ImPulsTanz Social은 아티스트와 관객을 초대, ImPulsTanz Festival Lounge 또는 Kasino am Schwarzenbergplatz의 큰 파티 중 하나에서 축하하고 춤을 추도록 소셜 이벤트를 진행한다.

■ 제주국제즉흥춤축제(Jimpro)

2016년에 처음 시작된 제주국제즉흥춤축제(Jimpro)는 제주돌문화공원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생태즉흥 예술작업으로 방향을 설정, 매해 개최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대한민국 제주도가 세계 인류를 위해 선사한 자연 문화유산이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의 다양한 돌들이 전시되어 있고,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100만 평 규모의 제주도의 모든 것을 담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제주도의 민속이나 역사 신화를 집대성해 놓은 곳이다.



발제 Ⅱ

즉흥은 창작 주체자의 무의식으로부터 이미지를 끌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용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짜여진 작품, 규격화된 공연 형식에서 벗어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몸짓은 무용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즉흥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공연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제주돌문화공원을 메인 장소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즉흥을 접목한 환경 예술작업을 표방, 20년이 넘는 서울국제즉흥춤축제와 차별화를 꾀하며, 세계 춤 축제 관계자와 무용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3. 차별화 된 공연예술 축제를 통한 제주의 지역 이미지 고양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은 공연과 창작활동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이해되고 있다. 무용예술 역시 극장예술의 중요한 장르인 만큼 예술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당연하나 무용교육이나 무용치료, 사회무용 등 창작 작업 이외의 다른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중 또한 약하다. 무용하면 공연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무용예술이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되지 못하고 예술가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고 이는 무용시장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또한 나가는 것 못지않게 불러들여 하는 국제화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정책이다. 곧 국가간, 민족간 자국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감(共感)”을 향한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아시아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은 다문화 시대에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그것의 공유에 대한 관심은 향후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또 국가 간 활발한 인적 교류를 확산하고, 세계를 향해 발신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인프라로서 문화상품, 공연예술 상품(축제 등)의 개발 필요성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문화적 소비 형태도 질 높은 예술프로그램이 동반된다면, 그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기존의 집단형태에서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국가 및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24개 위원국 포함 100여개 국가대표들이 참여한 제14차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 예술가 지위, 노동보상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환경에서의 문화상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 및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단체들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국의 예술이 세계와 소통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연예술을 통해 지구촌과 소통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연예술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일수록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강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예술교육과 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그리고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공연예술을 통한 동시대의 예술을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공유하게 된다면 이는 제주도가 공연예술을 통한 전지구화의 발

현 창구가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공연예술 축제의 미션은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휴양지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 공존을 담은 친환경적인 생태적 가치, 질 높은 예술작품의 서비스를 통해 사회, 경제 등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적 가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창작 작업과 관객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 추구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이미지 고양과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은 이미 선진 여러 나라의 21세기 중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단위의 효율적인 예술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시형의 요란한 문화정책 보다 이 같은 고 부가가치의 문화예술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1. 마을문화 조성 and '문화예술의 섬' 제주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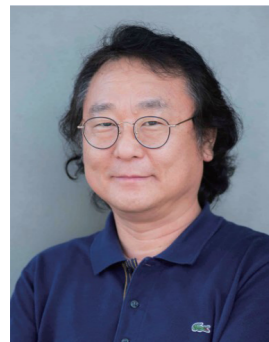


모더레이터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열린도시연구소 대표
갤러리 하루 대표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대표
공주시 예비문화도시 자문위원

- 패널리스트 **김수열** (전 KBS PD)
안동훈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양용호 (대안공동체 문화도시센터장)
이승연 (김택화미술관 관장)
허남춘 (제주대학교 국문과 교수)

2. 제주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 운용



모더레이터 장광열

서울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겸임교수
춤 비평가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대표

- 패널리스트 **강경모** (세계문화유산축전 부감독)
기은주 (무용다방, 탄츠하우스인제주 대표)
김희숙 (술향회 제주춤 대표)
손영신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위원)
이소현 (문화기획, 비영리재단 '마린' 대표)

3. 문화공간 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모더레이터 김태관

문화예술학 박사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감사
한국관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부회장
제주대학교 강사
제민일보 컬럼리스트

- 패널리스트 **김현정** (작가 문화도시)
백영태 (강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엄성운 (월정 예비뉴 대표)
오형석 (시사매거진 기자)
이광준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장)
조성원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사업팀장)

4. 예술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모더레이터 김길리

제주시티발레단 단장
대한민국발레축제 제주시부장
제주국제댄스포럼 운영위원

- 패널리스트 **김공수**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회장, 중앙대 교수)
박수현 (예술강사, 제주극장 대표)
박희태 (무용개혁추진위원회 운영위원, 우석대 교수)
함수경 (인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신라대 외래교수)
홍민아 (제주문화중개소 총괄감독)

사회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전) 제주매일 편집국장
제민일보 국회·청와대 출입기자, 서울지사장, 편집국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제주대학교 어로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언론학 석사
영국 Coventry University 대학원 졸업, MBA in International Business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 수료

제주국제댄스포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인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운영위원

김길리 제주씨티발레 단장, (사)한국발레협회 제주지회장

김철웅 제주댄스빌리지 추진위원장

김태관 제주아트센터 공연기획자

김희숙 제주춤아카데미 대표, 전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가

이해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무용예술학과 교수

장광열 무용평론가, 서울·제주국제즉흥춤축제 예술감독

전행진 아리랑국제방송 PD

2021 아름다운 무용인상 시상식 & 후원인의 밤

PROGRAM

개식사
인사말
심사보고
축하공연
시상
축사
수상자공연

2021.11.22. MON 19:00 유니버설아트센터

주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문의 02-720-6208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